

2017년 3월 31일, 조천읍 신촌리 동동노인정, 강수경 조사.

박원림(남, 1935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- 줄거리: 신촌리에 사는 한 할머니가 하루는 안개비가 내리는 밤중에 멀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다. 할머니는 그물을 들어서 신촌리 원에 내려갔다. 그런데 멀을 들었다고 소리치면서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.

[제보자] 이디 동네 그때는 헛게엔 헹 도깨비, 저 우리말로 도체비, 도체비 허는디. 도체

비 이제 산 도체비가 잇곡 죽은 도체비가 잇어. 그냥 떠돌아댕기는 도체비가 잇곡, 또 살양 말 골아도 우리, 저 생사름은 모르는디 말을 곤나 허여. 몸집은 못

보곡 말은 곤나 허여. 그거는 뭐 멧 헤 앞서??장도 그런 말을 했어.

그때 여기 유히 할망이 산 때 이디 살지 안 헷수과게. 심미골 사는 디. 그디 산 때 멜 막 그냥, 그땐 멜 막 들땐 디. 밤중에 그냥 안개비 너신너신헨 오는디. 여름 엔, 안개 꺼에 그랑비가 너신너신 오는디. 막

“멜 들었저, 멜 들었저.”

하도 저기서 웨울르나네 할망이 이젠 그 유희 할머니가 그물 들런, 그물 멜 거리는 그물 잇어. 족살다엔 헌 거. 그거 들런에 저 원더레 내려가젠 허니까이 물은 봉봉 들었는디 원담도 다 단디 막 저기서 사дум서 ‘멜 들었저 멜 들었저.’ 막 웨울리멍 헛게는, 그 헛게는 몸집은 보이는데 사름은 안 보인단 거라. 막 직접 말을 알아듣게 시리 웨울런. 겟 그런 말 들어나고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깨비, 산 도체비, 멜, 멀치, 헛게, 헛것, 유희 할망, 신촌리